

용주사 수원포교당 문화법회로 이색포교



◇ 21세기 포교는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며 문화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성관 스님.

시민 겨냥 음악·영화·연극감상 도입 1천5백명 수용 불교문화원 5월 개원

법회시간에 연극도 하고 영화도 본다. 용주사 수원포교당 주지 성관스님이 섰다. 큰 포교를 펼친다. 일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볼 수 있는 노래부르기, 영화보기, 연극하기, 국악기 연주하기 등을 법회에 적용하기로 한 것. 삼귀의, 찬불가를 부르고 참선을 한 다음 청법가에 이어 법문을 듣고 각 가정으로 되돌아가는 정형화된 법회. 불교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 성관 스님은 사찰을 처음 찾았다는 한 시민으로부터 "왜 이렇게 법회가 딱딱하고 지루합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 때부터 성관스님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한다. 문화법회가 비불자 포교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터득하게됐고, 시민들이 동참

할 수 있는 문화법회를 실시하기로 결심했다. 이 일환으로 성관스님은 지난 92년 불교문화원을 기공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불교문화원 3층부터 5층을 한 공간으로 하는 극장식 법당인 만불보전이 조성됐다. 1천5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불보전은 연극공연, 영화상영, 시청각교육,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무대, 조명, 음향 등 최신 공연시설을 갖추었다. 5월초 불교문화원이 개관되면 스님의 원력이 하나씩 펼쳐지게 된다. 시초가 바로 문화법회. 성관스님은 "대중들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법회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매주 한가지 주제를 선정해 일요일

회를 문화법회로 전환해 시민과 불자가 하나가 되는 도량으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요일회는 특정계층에 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이를 위해 스님은 불자, 비불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문화법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법회는 의식적인 부분을 대폭 축소하고 불자와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원문까지도 주제에 맞게 틀을 바꾸고 법회 동참자들이 참석자가 아니라 함께 진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관스님은 "제대로 된 포교 자료조차 없는 실정속에서 어떻게 하면 쉬우면서도 흥미 있게 불법을 가르쳐야 할 지 고민해 왔고, 지금도 고민중이다. 문화법회가 정착되면 앞으로 사찰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밀레니엄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할 것이다"며 "21세기 포교는 문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군사구역해제 탄원 남양주 봉영사 국방부에

남양주 봉영사(주지 철안)는 8일 '불합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방부와 2군지사에 발송했다. (본지 212호 23면 참조) 봉영사는 탄원서에서 "제반시설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적 특색과 역사적 연혁, 공공시설적인 측면을 참조해 군사시설보호법으로부터 풀어주기를 청한다"고 밝혔다. 봉영사는 정부종합청사민원실, 감사원, 국회국방위, 시민단체와 법적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관철시킨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김중근 기자

태고종도 종무전산화 착수 4단계 걸쳐 홈페이지·네트워크·DB 등 구축

태고종이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에 이어 올해를 '종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해'로 정하고 본격적인 종무전산화 작업에 착수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4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1차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종무프로그램을 개발, 총무원 재정 등 재무관련 업무 전산화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방 총무원과 유기적인 업무체계 확립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psdo@buddhopia.com)

동국대, 창업보육센터로 선정 문화·생명공학·정보통신산업 중점 육성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가 2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보육센터로 각각 선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캠퍼스는 문화예술, 경주캠퍼스는 문화, 생명공학, 정보통신분야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경주캠퍼스는 경주시와 연계해 문화테크노파크 설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캠퍼스 창업보육센터는 첫째 인 울해 대학자체예산 3억원과 시

비 1억원, 중소기업청 지원금 1억9천만원의 지원받게 되며 내년부터 5년간 입주기업 운영비로 매년 1억5천만원의 지원금을 경주시로부터 별도로 받게 된다. 산학관 협동체제로 운영되는 창업보육센터는 대학의 우수한 두뇌를 창업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고부가가치의 관광문화, 생명공학,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현철 봉사단 모집 생명나눔실천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는 백혈병과 재생불량빈혈 및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혈액공여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1일부터 자비현혈봉사단을 모집한다. 생명나눔회는 앞으로는 상시 현혈자를 모집해 봉사과 자비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단을 창립키로 했다. 자비현혈봉사단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골수이식 후 고통이 구하기 어려운 혈소판 수혈을 대비해 이들을 적극 활동할 계획이다. (02)734-8050 현철 생명나눔회는 18일 서울 삼천사, 21일 철원 심원사에서 잇달아 생명나눔 실천 캠페인을 벌인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8년째 불우노인 국수공양 부산 대각사 청년회 하루 8백그릇씩

청보리들이 8년째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 국수공양을 하고 있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대각사 청년회(회장 서현수) 회원들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대각사 청년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마지막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용두산 공원을 찾는다. 철야정진을 마친 회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국수를 삶고 구수한 국물을 우려낸 후 용두산 공원을 찾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국수공양을 올린다. 지난해부터는 실직자들을 불러 3~4백그릇으로 총당해 오



◇ 대각사 청년회 회원들은 매일 마지막주 일요일 용두산 공원에서 노인 및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국수공양을 실시한다.

과 마음까지 채워주는 진정한 공양을 올리는 시간으로 꾸며 불행이다"고 말했다. 니르바나할 창당은 이날 '산달타의 햇빛' 등 5곡의 선법가를 선사하게 되며 사물놀이팀이 용두산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흥을 돋우게 된다. 힘겨움속에서 배운 대각사 청년회의 자비행은 한국자원봉사

에서 상을 받아 불교 청년회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올한해 청년회 주축으로 학생회, 어린이회와 연계해 통해 보다 내실있는 청년회 활동을 구상중인 대각사 청년회는 불법을 함께 배우고 실천해 나갈 청년법도를 기다리고 있다. (051)245-8781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위더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동 45번지. TEL: (02)396-2736 P: 016-228-2358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1972년에 설립된 대원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38개기 졸업·현재 39기생 모집중)

- 1.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불교학과 통신과정
- 2. 지원자격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원하는 신심있는 불자 ○대중불교 운동의 지도자 자질을 갖춘 불자
- 3. 강의시간 주 4일 수업 (19:00~20:00) 화, 수, 목, 금
- 4. 교육과목 20개 과목 2년간 총 28주 교육

학년	교육과목
1학년	1학기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2학기 ◇대승불교의 이해 ◇중국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2학년	1학기 ◇불교문화의 이해 ◇비교종교 ◇부파불교 ◇유식사상
	2학기 ◇초기대승불교 ◇반야사상 ◇기신론 사상 ◇천태 사상 ◇화엄 사상 ◇선사상 ◇정토 사상 ◇불교교리 발달사

* 매주 의식교육 실시 * 범패의식 특강 (동·하게 스물리때는 범패의식 교육)
* 교수진: 권기종교수, 조용길박사, 권탄준박사, 장희욱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김사업박사, 김종명박사, 법현스님 (동국대학교수 9명), 강건기박사(전북대학교수)

- 5. 원서교부 3월·8월 (본대학 서무과) * 수시접수가능
- 6. 제출서류 ◇입학원서(반명함판사진 3매)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7. 전형방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8. 특전사항 ◇소정의 법사고시를 통하여 법사호 수여 ◇포교실습 지방자치단체 제공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부여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2천만의 깨달음을

장수행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지사·지국 안내

1.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산 11번지

위치적 장점

- 1. 산세가 수려하고 푸른 숲과 맑은 공기
- 1. 약수를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환경
- 1. 시내 중심지에 위치, 편리한 교통
- 1. 마을과 떨어져 있어 한적함
- 1. 종합병원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이 5분 거리내에 있음.

2. 대 지: 6,940평
3. 종교시설: 106평 <대웅전은 조립만 하면 됨>
4. 실버타운: 829평 <현재공사 진행 40%>
5. 구공사 정특스님께서 보살도의 원력으로 불사에 동참하실 뜻있는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 051)242-6993 / 016)580-8125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양양지국	0396-672-5556
청주지사	016-347-2938
강릉지사	0391-43-5599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고성지국	0556-72-0078
제주지사	064-738-5000